

화학기업, 이익 많아도 투자 안한다!

12월 결산 117사 유보율 25%p 상승 ... 정유·석유화학 재무구조 개선

2004년 들어 국내 상장 화학기업들의 유보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하반기와 비교 가능한 12월 결산 상장 화학기업 117사의 2004년 6월 말 현재 평균 유보율은 847.36%p로 2003년 말 822.34%p보다 25.02%p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잉여금의 비율로, 수치가 클수록 재무구조가 안정돼 있고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을 위한 자금 여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유보율이 가장 큰 곳은 태광산업으로 2만4513.16%에 달해 전체 화학기업 유보율의 24.7%를 차지했다.

태광산업을 제외하면 화학기업 116사의 평균 유보율은 643.34%로 2003년 말 622.93%보다 20.41%p 상승했다.

대한화섬의 유보율이 3865.2%로 가장 높고 건설화학 2783.98%, 금강고려화학 2779.47%, 조흥화학 2581.74%, 한독약품 2423.67%, 동아타이어 2093.6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보율 1000% 이상 화학기업도 21사에 이르렀다.

반면, 동성제약, 코스모화학, 한솔케미칼, 새한, 녹십자상아, 동신제약, KG케미칼, 대영포장, 삼성제약 등은 유보율이 100%에 못미쳤으며, KP케미칼과 영진약품의 유보율은 한자릿수로 저조하고 조비, 금양, 새한미디어, 한국합섬 등은 유보율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유보율 상위 상장 화학기업 현황

(단위: 100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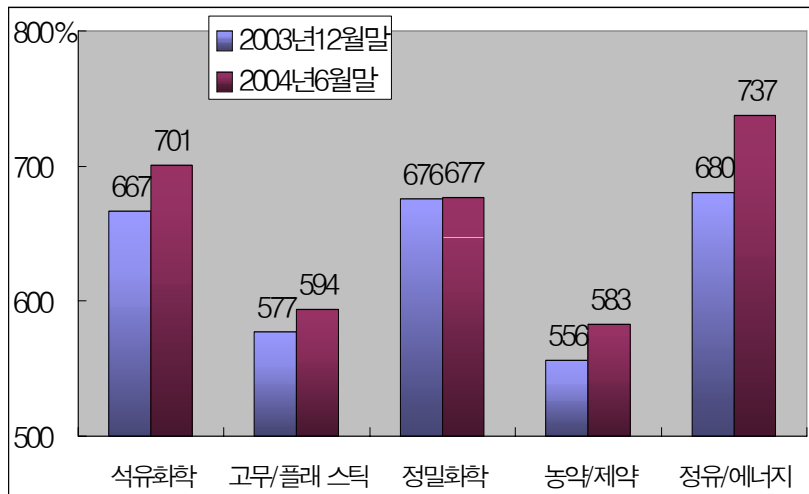
구 분	자본금(반기누적)		자본총계(반기누적)		유보율	
	2003.2H	2004.1H	2003.2H	2004.1H	2003.12	2004.6
대한화섬	6,640	6,640	264,975	263,289	3890.58	3865.20
건설화학	6,500	6,500	179,769	187,458	2665.68	2783.98
금강고려화학	56,252	56,252	1,735,948	1,619,768	2986.00	2779.47
조흥화학	3,000	3,000	79,113	80,452	2537.11	2581.74
한독약품	5,800	5,800	144,352	146,373	2388.83	2423.67
동아타이어	11,509	11,509	244,254	252,471	2022.24	2093.63
태평양	51,005	51,005	821,397	909,465	1510.43	1683.10
코오롱유화	9,293	9,293	159,323	164,622	1614.48	1671.50
DPI	12,629	12,629	205,770	214,101	1529.31	1595.28
한국타이어	75,095	75,095	1,085,656	1,155,511	1345.71	1438.73
카프로	8,335	8,335	125,522	126,926	1405.96	1422.80
울촌화학	14,776	14,776	196,587	215,835	1230.41	1360.68
한국화장품	10,300	10,300	141,097	138,600	1269.88	1245.63
삼양사	51,154	51,154	650,582	673,984	1171.81	1217.56
제일약품	7,425	7,425	89,777	96,187	1109.12	1195.45
유한양행	36,137	38,002	459,743	480,886	1172.21	1165.41
서흥캡셀	5,903	5,903	70,734	72,203	1098.32	1123.21
평화산업	10,651	10,651	126,615	129,524	1088.81	1116.12
대 상	46,158	46,158	530,589	535,622	1049.51	1060.42
효 성	158,138	164,094	1,831,068	1,897,223	1057.89	1056.18
세원화성	8,000	8,000	89,696	90,460	1021.20	1030.76

† 태광산업 제외

주력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화학산업 5대 부문의 유보율은 다소 차이를 보여 정유·에너지 5사의 유보율은 2003년 말 680.37%에서 2004년 6월 말 737.08%로 크게 증가하고, 석유화학 24사 역시 2003년 666.60%에서 700.94%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무·플라스틱 20사는 576.94%에서 593.51%로, 농약·제약 33사는 556.06%에서 582.78%로 각각 16.57%p와 26.72%p 증가한 반면, 정밀화학 34사의 유보율은 675.62%에서 677.02%로 증가율이 저조했다.

상장 화학기업의 평균 유보율 비교



† 태광산업 제외

‡ 석유화학 24사, 고무·플라스틱 20사, 정밀화학 34사, 농약·제약 33사, 정유·에너지 5사 기준

한편, 금융기업을 제외한 국내 12월 결산 525개 상장기업의 2004년 6월 말 현재 유보율은 445.85%로 2003년 말 410.58%보다 35.27%p 상승했다.

유보율 상위 상장기업에는 SK텔레콤(1만4108.5%), 롯데칠성(1만1670.2%), 롯데제과(1만1531.7%), 남양유업(1만1112.1%), 영풍(5701.4%), 고려제강(4706.9%) 등이 랭크됐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의 평균 유보율은 549.61%로 53.54%p 증가했다.

SK그룹이 1060%로 가장 높았고 삼성(944.98%), 현대중공업(677.16%), 롯데(561.77%), 한진(460.73%), 현대자동차(407.29%), LG(272.76%), 두산(252.78%), 금호아시아나(237.33%), 한화(143.17%)가 뒤를 이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이 상반기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린 반면,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투자를 꺼리면서 유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30>